

천주교대구대교구 성지  
관덕정순교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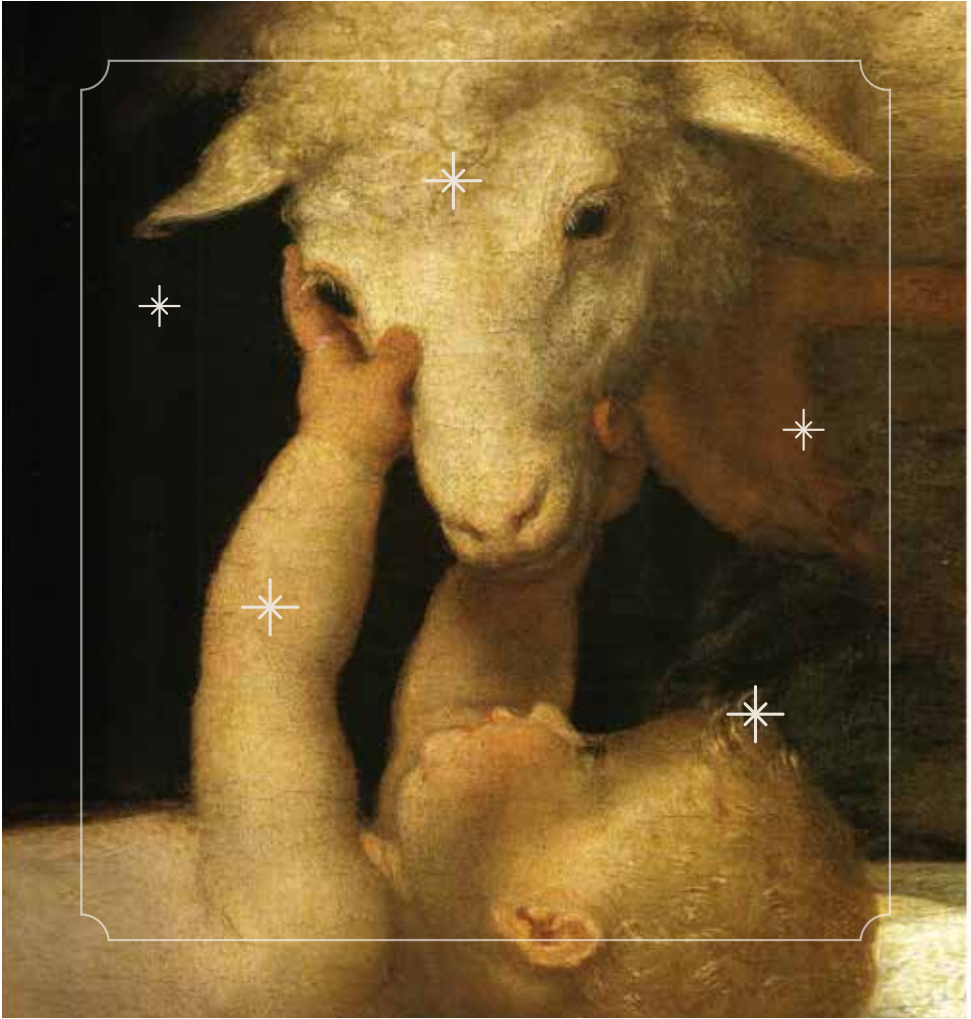
# 관 덕 정

—  
통권 86호  
—

Gwandeokjeong  
Martyrs Shrine



관덕정 순교  
기념관



예수 성탄을 축하합니다.



2019. ● ●  
1.12. 토 ● ●  
~  
1.20. 일 ● ●



● ● 관덕정  
● ● 순교  
● ● 기념관

## 제28회 성 이윤일 요한제

주제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기 1장 2절나)

## 성경 안의 주인공 성령님

강사 박병규(요한보스코) 신부

제28회 성 이윤일 요한제 동안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일제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성 이윤일  
요한제  
9일 기도

일시	기도지향
1월 12일(토) 오후 5시	사랑
1월 13일(일) 오후 3시	기쁨
1월 14일(월) 오후 3시	평화
1월 15일(화) 오후 3시	인내
1월 16일(수) 오후 3시	친절
1월 17일(목) 오후 3시	선행
1월 18일(금) 오후 3시	진실
1월 19일(토) 오후 5시	온유
1월 20일(일) 오후 3시	절제

성 이윤일 요한  
순교기념미사

2019년  
1월 21일(월)  
오후 4시

주례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관덕정의 바람

이순금 모니카  
기획위원회

지난해에는 평신도 희년 전대사가 있어 많은 이들이 관덕정을 찾았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관덕정을 찾는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다. 각 본당의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전 성지순례를 하는 과정에 관덕정은 꼭 들리는 곳이다. 예비 신자들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한국 순교성인들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느끼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평신도들이 초석을 다져놓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알아 가게 된다.

관덕정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순교성지이지만 도심 속에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오는 곳이다. 어떤 이들은 성지 순례를 하고 어떤 이들은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지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쉼터로 찾고 어떤 이들에게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런 관덕정에 바람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반월당에서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와 자신들의 꿈을  
이곳에서 꾸기를 바란다.



관덕정에서 펼치는 순교자현양 사업의 하나로 올해는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와 공동으로 “애들아 관덕정 가자”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기행문과 UCC\* 공모전을 실시했다.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을 말하며, UCC에는 문자,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제작자가 손수 만든 모든 종류의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대구대교구 제2주보성인이신 이윤일 요한 성인과 대구의 순교복자 20위, 하느님의 종 5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참가 대상은 대구대교구 소속 초등부 4학년 이상부터 고등부 3학년까지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순교성지를 순례하고 순교신심이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청소년들이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척화비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쇄국정책과 천주교 박해 역사를 알고, 또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며 신앙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를 고대한다.



# 순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2018 순교자현양  
청소년기행문공모전  
수상작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다녀와서 ///



김소연 소피아  
성 바울로 성당

지난 여름방학 동안 나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교리 선생님과 함께 관덕정순교기념관을 찾았다. 여름 주일학교 신앙캠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하며 순교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모당과 계산성당을 순례하고 걸어서 관덕정순교기념관 앞에 다다르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예쁜 기와지붕과 커다란 동상이었다. 알록달록한 지붕이 마치 절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갓을 쓰고 서 있는 동상은 누구일까 궁금했다.

조금 가파른 계단을 올라 순교기념관으로 들어서자 여러 가지 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된 동그란 유리창과 한복 차림의 성모자상, 그리고 사각형의 길쭉한 비석 같은 것이 있었다. 벽에 있는 그림이나 성물들이 모두 한복차림의 옛 어른들 모습이어서 나는 마치 역사 속의 옛날로 들어선 것만 같아 마음이 설레었다.

먼저 1층 로비에 서서 우리는 교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관덕정은 원래 조선 시대 때에는 군사 훈련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부터 천주교 성지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장소를 사형 집행 장소로 정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 무서워 떨렸다.

그 조용한 관덕정 어디에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붉은 피가 보이는 것도 같았다.

아마 그 순교자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참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친구들이 장난으로 비웃고 놀려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이 떠올라 조금 부끄러워졌다. 또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아프다며 울며 엄마께 짜증 부린 일도 생각나  
얼굴이 화끈했다. 순교자들께서는 모든 고문과 채찍질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순교자들처럼 나도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참을 줄도 아는 소연이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관덕정을  
둘러보았다.

먼저 우리는 지하 1층 성당으로 가보았다. 계단을 내려가 오른쪽  
벽에 커다란 그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윤일 성인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제대 안에는 그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고 하셨다. 이윤일 요한  
성인께서는 103위 순교성인 중 한 분이시고 대구대교구 제2주보  
성인이시라고 하셨다. 입구에 갓을 쓰고 서 있는 동상이 누구  
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저 성 바울로 성당의 소피아예요. 신부님께서 성지  
순례를 할 때는 지향을 하나씩 가지라고 하셔서 저도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오빠 루카는 4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누워 있어요. 우리 착한 루카 오빠가 어서 일어나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성인께 부탁드렸다.

성당 오른쪽 작은 방에는 유해현시실이 있었는데 옛날 계산 성당에서 사용하던 제대가 놓여 있었다. 우리 성당 제대와와는 달리 조각이 많이 되어 있고, 마치 커다란 벽난로같이 멋졌다. 그 제대 아래와 벽에도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나는 인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구경하러 갔었다. 그런데 그건 예쁜 장난감 인형이 아니라 무릎에 두 줄이 선명하게 새겨진 순교자들 모습의 인형이었다. 줄톳질이라는 고문을 받은 흔적이라고 했다. 교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너무 끔찍했고 내 무릎이 아픈 것 같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죄라고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지 생각하니 분한 생각도 들었다. 내가 가서 따지고만 싶었다.

위층에 올라가니 등근 전시대 속에 순교자들과 관련된 자료, 유물, 책 등이 있었다. 별로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낡고, 글씨를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대강 지나가면서 슬쩍 보는데 안쪽에 순교자가 사용했다는 기도서가 눈에 띄었다. 손때가 묻어 매우 낡았고 글씨를 알아보기도 힘든 한글로 된 기도서였다.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으면 기도서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도 바빠 아침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은 나 자신이 반성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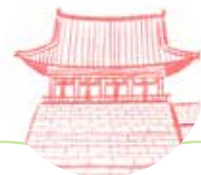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신, 키가 크신 관덕정 신부님 말씀을 들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선 그분들,  
그 순교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순교하심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이 가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셨다.  
또 순교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셨다.  
죽음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니…….

관덕정을 순례하지 않았다면 마냥 어렵기만 했을 그 말씀이  
지금은 그 뜻을 알 것도 같아 자주 생각한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나서며 그곳에 모셔진 이윤일 요한 성인과  
많은 순교자들에게 마음속으로 다시 감사를 드리며 다짐했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후손인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셔서  
지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  
관덕정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었다.



## 교황대사 방문



2018년 11월 3일(토)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관덕정을 방문해 성당에서 방문 소감을 전한 후 함께 한 교우들과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교황강복을 주었다. 알프레드 교황대사의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이곳에 싣는다.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요한 보스코 주교님께서 저를 초대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방문을 통해 제 경험인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깊은 신앙과 열정은 제가 소임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됩니다. 제가 교황님을 뵈게 될 때 이곳 관덕정에 방문한 것을 말씀드리고 교황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교황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한국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한국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고 누구나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정치인들과 세계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힘써주라고 당부하시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 주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성모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곳에 계신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 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프랑스 주교단 방문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대교구를 방문했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교구장 뢰 라벨 대주교와 벨포르-몽벨리아흐 교구장 도미닉 블링쉐 주교가 10월 10일(수) 관덕정을 순례했다. 며칠 뒤 뢰 라벨 대주교는 관덕정을 다시 찾아 순교자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온 신부들과 순례를 했다.



## 대림 영성특강

관덕정순교기념관

12월 1일(토) 고성성당 이상재(가스톨) 신부의 대림 특강이 있었다. 이상재 신부는 강의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와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내용을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 흥미 있게 이야기했다.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인간에게 맡겨진 하느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 국내 성지순례



10월 18일(목) 44명의 순례단이 천호성지를 함께 순례했고 11월 15일(목)에는 공주 황새바위성지를 순례했다. 이로써 올 한해 성지순례를 마무리했다.



**천호성지**  
(전라북도 완주)



**황새바위성지**  
(충청남도 공주)

## 제 단체 야외행사



10월 15일(월) 관덕정 제 위원회와 단체 회원들이 마산 교구 순교복자 윤봉문 요셉 성지를 순례했다. 성지에서 야외미사를 함께 봉헌한 후 위원회별로 십자가의 길을 하고 윤봉문 순교복자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바르바라 회원들은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을을 다녀왔다.



**윤봉문요셉성지**  
(경상남도 거제)

##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2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 평생회원

故곽봉수 故곽태영 故곽형수 故권성록 故김규갑 故김달분 故김삼순  
故김성도 故김영희 故김정순 故김철호 故김태훈 故김한수 故남덕행  
故박대우 故박봉연 故박석수 故박성호 故박용태 故백충흠 故사공옥  
故서기교 故서도용 故서정연 故서종식 故서진병 故손복성 故손성규  
故송화인 故신운재 故신학순 故오원건 故유차연 故유판순 故은학표  
故이기진 故이동식 故이복구 故이복연 故이봉기 故이봉애 故이영일  
故이영자 故이용근 故이의설 故이재훈 故이종창 故임봉조 故정부남  
故정수득 故정정훈 故정현수 故조복심 故조용우 故주용산 故차태임  
故채경희 故최말순 故최성은 故최영하 故허경자 故허귀정 故허소래  
故허용태 故허희태 故황복순

강신옥 권정자 김경애 김계순 김병철 김상직 김영희 김옥련 김옥순  
김점수 김정애 박분이 박재홍 박정흠 박춘심 배진호 백승묘 백승영  
변상숙 서차순 손주영 송지은 우세명 위동순 이분섭 이영제 이은정  
이점성 이지민 이태국 이태선 임채천 전월순 전질연 정신영 주경란  
주은숙 최미저 최성주 최승환 홍원자

### 가족회원

강승화가족 권미정가족 권오분가족 김덕자가족 김복자가족 김영숙가족  
김일성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운가족 김 현가족  
김효정가족 김희정가족 도경호가족 류진훈가족 마운현가족 문정숙가족  
문정인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문규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선희가족 박애자가족 박이순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종만가족

## 가족회원



박종출가족 박창근가족 박화수가족 배병훈가족 백덕흠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보영가족 서성교가족 서판식가족 손영환가족 손준자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여세진가족 오재동가족 오재명가족  
 오재호가족 오현경가족 윤순임가족 윤정순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경순가족 이정희가족 이길자가족 이만호가족 이매화가족 이성희가족  
 이수자가족 이숙희가족 이영수가족 이윤수가족 이종우가족 이준호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레가족 전남숙가족 전순자가족  
 전정숙가족 정계희가족 정명숙가족 정화숙가족 조정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성제가족 조소화가족 주재창가족 최점순가족 최주영가족 홍수종가족  
 홍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 개인회원



강예린 구애자 권필분 김무래 김분이 김성은 김순애 김영자 김옥영  
 김용준 김용현 김재인 김지혜 도대균 박덕향 박동숙 박성예 박용철  
 박용택 박정옥 박효숙 백승원 백영진 서보희 성경훈 성진현 손환희  
 송순자 신경숙 안복희 우숙경 우숙희 이기에 이승민 이윤희 이호자  
 장임석 전기엽 전화선 정연숙 제현희 조성경 조양래 천정숙 최성우  
 최성옥 최성은 최은경 표은희 한철호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 가입방법

####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053)254-0151번이나 0159 번으로 전화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 방문하셔도 됩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1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 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납부계좌**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회비를 송금해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 거래하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월 2,000원 / 가족회원 월 5,000원

## 후원회비

**일반회원** 연 20,000원

**가족회원** 연 50,000원

**평생회원**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 기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관덕정순교기념관 미사안내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3시
목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5시 (주일미사)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